

## 英國 宗教改革의 源泉

李 東 燮\*

Tudor朝 Henry 8세의 離婚事件으로 因해 英國에 宗教改革이 發生했다고 보는 것은 一般的인 見解이다. 그러나 國王의 離婚事件만이 英國 宗教改革의 唯一한 原因이었다고 斷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Henry 8세의 離婚事件이 發生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John Wycliffe의 先驅的 宗教改革思想의 影響, Lutheranism의 流入과 그 影響, 그리고 英國의 傳統的인 反外勢·反 教皇·反教權主義的 國民感情 등이 점차 성숙하고 또한 그러한 要素들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언젠가는 英國에서도 宗教改革이 반드시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筆者는 英國 宗教改革의 源泉的 要因이라고 믿어지는 Wycliffe의 反가톨릭主義, 信仰 中心主義, Lutherans의 新教的 宣傳活動, 國家至上主義, 反教權主義的 國民感情 등의 性格을 고찰함으로써 英國 宗教改革의 源泉的 要因을 밝히고 또한 그것에 對한 再評價를 試圖하고자 하는 것이다.

### I. Wycliffe의 개혁사상과 그 영향

존 위클리프(1324~1384)와 그의 추종자들이 신교적 핵심 교리들을 Luther나 Calvin보다 먼저 주장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위클리프는 1350년부터 Oxford대학에서 그의 신학과 철학으로 큰 명성을 얻고 있었으나, 1370년대, 영국에 정치적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의 이름은 학계 이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sup>1)</sup> 즉 1377년에 리처드 2세가 어린 나이로 에드워드 3세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신앙의 숙부인 존 오브 고온트(John of Gaunt)가 섭정

\* 西洋史 : 副教授

1) C. Cross, Church and People(Glasgow : William Collins Sons & Co. Ltd., 1976), p. 13.

으로서 실권을 장악하고, 민족국가의 종교정책을 떠나감에 있어 영국교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교회의 過所有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어용적 선전가가 필요했다. 위클리프는 여기에 응하여 교회의 축재, 교황청의 부당한 권력행사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으면서도 마침 당시는 교황의 분열시대였기 때문에 위클리프의 신변은 安守했다. 그러나 1215년 Lateran공의회 이래 카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로 확정된 化肉說의 교리를 위클리프가 무자비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클리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영국의 고위성직자들은 이 기회를 잡아 위클리프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존 오브 고온트(John of Gaunt)도 카톨릭의 구습 타파를 외친 위클리프에 대해서는 보호의 손길을 보낼 수 있었지만, 카톨릭의 핵심적 교리를 부정하고 스스로 이단이라고 선언한 위클리프를 더이상 보호할 수가 없었다.<sup>2)</sup> 여하간 위클리프는 그의 말년에는 단순한 개혁론자이거나 신앙부흥론자가 아닌, 분명한 종교혁명가임을 천명하고 있었다. 그는 주로 교황의 부패와 부조리에 대하여, 사제와 수도자와 탁발승의 방탕한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기적과 순례와 우상숭배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난했다.<sup>3)</sup>

위클리프는 성경이 신앙의 표준임을 믿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모두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기존의 예정설<sup>4)</sup>을 보완하여 진정한 교회는 신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구원하고자 예정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톨릭의 교리의 핵심인 화육설에 대하여, 이는 불건전하게 만들어진 인간적인 작품이라고 비난하고, 성찬식 때의 크리스트의 몸과 피는 오직 상징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빵과 포도주의 효능은 성찬을 받는 신도들의 진정한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또한 과감하게 反敎權主義를 외치고 종교는 국가에 종속해야 한다는 Erastus적 학설과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위클리프는 교황의 주장권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의심해왔다. 그는 또한 성직자의 독신주의를 반대하고 세속과 관련이 없는 수도원주의를 비난했으며 성직자들이 치부한 재산은 국가가 이를 몰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위클리프는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나, 얼마의 영향을 끼쳤다. Bohemia의 John Huss는 대륙의 선구적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으나, 그의 개혁사상은 위클리프의 교설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 때문에 위클리프의 개혁사상이 영국에서 탄압을 받아 거의 소멸상태에 빠져있을 때에도 Bohemia에서는 Huss의 추종자들이 이를 계속 보전하고 있었던 것이다.<sup>5)</sup>

2) Ibid., p. 14.

3) M. E. Aston, "John Wycliffe's Reformation Reputation", Past and Present, No. 30(April, 1965), p. 30.

4) Bradwardine 캔터베리 대주교(14C)가 창안했던 예정설로, 대주교는 신의 절대적 전능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뜻에 반대되는 신의 의지의 우월성을 주장함.

5) M. Deanesly, The Lollard Bible and other Medieval Biblical Versions(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p. 122.

영국 내에서의 위클리프의 교설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 수정되기도 했다. 여하간 그가 별세하기 전 몇년동안 그의 개혁사상은 市民, 상인, 젠트리 층과 성직자 일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위클리프의 영향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경제적 불만을 가진 농민들 중에는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도 구교적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니었고, 그를 지지했던 有力人士들 중에서도 다수가 그의 극단주의와 化體說의 否定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John of Gaunt조차도 카톨릭 주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위클리프의 힘을 잠시 이용한 바 있으나, 이제 극단론으로 호른 위클리프를 더이상 옹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클리프파는 그들의 熱誠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종교정책을 좌우할만한 실질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상, 그 어떤 개혁 집단도 헨리 8세가 별세하기 전까지는 영국의 종교적 패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더구나 Lollard운동은 원천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신학적인 운동이었던 것이다.”

최초의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은 Nicholas Hereford 등 Oxford의 성직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의 大主教인 Courtenay의 압력에 굴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후부터 영국 카톨릭교회로부터 분리한 종교적 분파에 대해, Lollard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Lollard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자”라는 화란어에서 유래한 것이다.<sup>7)</sup> 여하간 Lollard는 열렬한 반카톨릭주의자였던 것이 확실하다. 종교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P. Repingdon이란 사람이 주도하는 새로운 Lollard운동이 Leicestershire부근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단적 집단운동은 Middlesex, Essex, Kent, Surrey, Hertford, Sussex州 등 London주위의 여러 州로 확산되었다. 위클리프의 비서였던 Purvey는 영어성경을 마련해서 이를 대중에게 보급함으로써 이단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마침내 14세기 말엽에는, Lollard파로부터 선출된 몇명의 하원의원들이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성공하고, 1395년에는 소위 12箇條<sup>8)</sup>가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다음은 12개조의 주요 사항만을 뽑아 이를 요약한 것이다.

1. 영국교회는 로마교회의 행동을 따라 축제에 열심인데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2. 성경에 언급된바 없는 성직자의 독신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성직자의 결혼은 자연적 현상이다.
- .....
- 4~5. 聖變化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기적에 불과하다. 포도주, 빵, 물, 기름, 양조, 췌, 십자가 등에 대한 주문과 축복행위는 진정한 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이는 순전히 무격적 신앙을 나타내

6) M. E. Aston, "Lollardy and Sedition, 1381~1431", Past and Present, No.17(April, 1960), p.1.  
 7) 화란어에서는 오래 전부터 카톨릭적 전통신앙이 의심되는 사제들에게 Lollard라는 명칭이 부여되고 있었음.  
 8) Lollard Conclusions라고도 불리우는 이 12개조는 Lollard派의 신조로서, 그 내용은 매우 학구적이고 수준높은 이단사상을 나타내고 있음.

는 행위이다.

7. 故人의 명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기만적인 布施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9. 告白은 사제의 오만을 조장한다. …… 성직자들은 神의 대리자로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하나, 이는 거짓 주장일 뿐이다.
12. 사도 바울은 衣食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만족하라고 명하였다. …… 불필요한 미술장식품, 세공품들은 인간의 덕성을 함양키 위해 소멸되어야 한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Lollard 12개조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체설, 성직자의 독신주의, 교인의 명복을 비는 기도행위, 순례, 우상숭배, 로마교회에 대한 복종, 성직자의 이중생활 등에 대해 비난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모든 카톨릭적 주장에 대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12개조는 다른 Protestantism과는 달리 성경의 중요성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결국 Lollard운동은 교회 당국의 박해를 받아, 피해다니며 비밀집회를 갖는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Lollard파에는 유능한 지도자들이 부족해서 성서적 기본주의에 떨어지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들에 의한 성경해설이 허용되기도 하여 종종 종교적 奇想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들은 악의적인 증인들에 의해 불리한 종교재판을 받았으나, 이들 모두가 같은 종교사상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Lollard와 종교적 회의주의자를 구별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비록 Lollard운동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Lollard는 그들의 신학과 신앙의 근거를 성경과 예수의 생애에서 찾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카톨릭의 의식주의에 비해, 좀더 순수한 기독교적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위클리프를 포함한 Lollard지도자들은 下이 그의 상전에게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유력자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기도 했다.<sup>9)</sup> 반면에 그들은 농노 등 사회의 최하층민에게 조차 자유롭고 능동적인 종교생활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다. Lollard파는 또한 Stuart 왕정시대의 여러 분리파교도들의 선구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클리프의 개혁사상이 후세에 끼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은 점차적으론 하층민들로 구성되어 갔는데, 이러한 추세는 15세기 초에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교세나 정치적 열망은, Lancaster家の 지배자들이 이단파 투쟁함에 있어 카톨릭측을 지지했기 때문에, 크게 약화되고 말았다. 성경번역을 담당했던 John

9) H. Bettenson(ed.),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Oxford : The University Press, 1982), pp. 175~9.

10) M. E. Aston, "Lollardy and Seditiion", Past and Present, No. 17(April, 1960), p. 7.

Purvey는 교회당국에 붙잡혀 참회를 강요받았고, 수명의 Lollard지도자들은 처형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 조치로써도 하원의 Lollard의원들을 거세시킬 수는 없었다. 오히려 얼마 뒤에는 Lollard의원들이 주동이 되어 이단에 대한 규제법을 완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교회의 잉여재산을 몰수해서 이를 國王所有로 한다든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자금으로 전용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1414년에는 다시 Lollard에게 재난이 닥쳐왔다. 이번에는 Lollard제2세대의 지도자인 sir John Oldcastle<sup>11)</sup>이 이단자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그후 영국의 각지로부터 Lollard교도들이 힘을 규합해서 London으로 진격했지만 Henry 5세에게 패하여 많은 교도들이 체포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정아래 지배층 일부의 지지마저 상실한 Lollard운동은 地下로 잠적하는 수밖에 없었다. 비록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려고 기도했던 Lollard의 음모를 국가에서는 뒤늦게야 알아챘지만, 대체로 15세기의 Lollard지도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야심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다. 이제 Lollard 집단은 혁명적인 투사가 아니라 완고한 신자들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점차 온건한 상인들을 포섭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성직자들과 기술자들을 그들의 집단으로 끌어들이었다. 15세기 중엽부터는 이단에 대한 당국의 박해가 별로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15세기 말엽에는 다시 Lollard운동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당국의 노력도 현저하게 나타났다.<sup>12)</sup> 이 사실은 영국의 본격적인 종교개혁과도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6세기 초 최대규모의 Lollard 집단은 Buckinghamshire의 Chiltern지역에서 나타났고 다음으로 큰 집단은 Lincoln주교관구 남단에서 나타났다. 15세기의 Lollard운동의 중심지였던 Amscham은 1495년 까지는 Lollard의 아성처럼 되어있었다. Smyth Lincoln주교는 이 곳에서 60여명의 이단자들을 취조했다.<sup>13)</sup> 이들 중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이단사상을 취소하고 참회하는데 동의했으나, 일부는 참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火刑을 당하기도 했다. 1512년에 Longland주교는 좀더 큰 규모로 이단자들을 탄압했다. 즉 350여명이 Longland주교에게 재판을 받고, 이중 6명이 처형되었고, 50여명이 그들의 죄과를 참회하고 이단신앙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sup>14)</sup> 이들은 주로 화체설의 부정, 번역성경의 사용, 성인숭배·순례제도·연옥의 否定 등의 죄목으로 고발되었던 것이다.

좀더 중요한 이단적 세파조직은 London주교관구 내의 London市와 Essex주에 존재했다.<sup>15)</sup> 16

11) M. Deanesly, *The Lollard Bible* (Cambridge : The Univerty Press, 1966), p. 240에 보면 Oldcastle은 Bohemia의 Huss와도 交信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12) A. G. Dickens, *The English Reformation* (New York : Schocken Books, 1984), p. 26.

13) *Ibid.*, p. 27.

14) *Ibid.*, p. 27.

15) *Ibid.*, p. 28.

세기 초에는 London市에서만도 두차례에 걸쳐 77명의 Lollard교도들이 교회법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혀 기소되었다. 이들 중 4명이 火刑을 당하고, 또 다른 4명은 교회당국에 잘못을 시인한 다음에 처형되었다. 1514년에는 이른바 <Richard Hunne사건><sup>16)</sup>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교회와 국가 사이에 위기의식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금까지 도시주민들 중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이단자들의 수가 적었으나 Hunne의 피살사건 이후에는 主教에 대한 상층시민들의 반감이 크게 증대하였다.

Hunne사건 이후 London과 Essex의 투사적 Lollard교도들로서는 John Hacker, John Stacey, Lawrence Maxwell 등을 들 수 있다. Hacker는 1520년경 주로 이단서적들을 배포했고, 1512년에는 Buckinghamshire의 Lollard와 접촉하다가 적발되어 Lincoln교구의 당국자들에게 Lollard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다. Stacey와 Maxwell은 London을 드나들면서 폭넓은 이단활동을 벌였고, 특히 Stacey는 요한계시록을 번역하기도 했다. 얼마 후에 이들은 루터교에 매혹되어 대륙에서 들어온 루터의 저술과 Protestant 서적들을 판매하는 일에 열성을 기울였다. Hacker의 제자이며 피혁상이기도 했던 John Tewkesbury는 Tunstall주교에게 설득되어 그의 이단신앙을 취소했으나, W. Tyndale이 쓴 「사악한 財物」(the Wicked Mammon)<sup>17)</sup>에 나오는 Luther의 개혁사상에 매료되어, 이 책을 다수 복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시켰다. Robert Necton이라는 London사람도 대륙에서 수입한 Protestant 서적들을 London주변에서 판매했는데, 이 사람 역시 Lollard운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이었다. 1520년대 중반에는 London에서의 이단운동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Tunstall주교와 그의 후임인 Stokesley주교는 이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했다. 1527년에서 1532년 사이에 200명 이상의 이단자들이 London주교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들의 이단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 이 무렵 實勢的인 대륙의 Protestantism과 영국의 Lollard 신앙이 혼합되기 시작했다. Lollard 집단은 특별히 루터주의에 대해 찬양하는 글을 남기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위클리프 시대로부터 루터주의와 유사한 개혁사상들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Kent주에 있던 몇 개의 Lollard 집단들은 Warham켄터버리 대주교에게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다. 1511~2년 사이에 대주교는 50명의 이단자들을 正統의 신앙으로 전향시키고, 5명의 이단자들은 세속 당국에 넘겨 처형케 했다. 영국 중부의 Coventry市에서도 Lollard的 이단운동이 활발하여 수명의 순교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身分上으로 볼 때, Lollards는 대부분 서민들이었다. 즉 이들의 대부분은 직조공, 목공, 금속

16) Hunne이라는 London 상인이 교회에서 부과한 매장료 등 세금에 대해, 이를 불법이라 항의하다가 구속되어 피살된 사건

17) Tyndale이 Luther와 Zwingle의 종교개혁사상의 영향을 받고 독일 망명 중에 펴낸 프로테스탄트 신학서적인.

세공인, 제화공, 양복공 그리고 각종 상인들이었는데, 이들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당시에는 기능공과 도시 근로자의 수가 단순농업 종사자의 數보다 더 많았다. 이들은 매우 활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이들 中에는 문맹자도 상당수 있었으나, 이러한 약점은 교리와 성경지식으로써 보완될 수 있었다.

Lollard사상의 영향력은 결국 그들의 영역 밖으로 확대되고, 특히 16세기 초에 일어난 Lollard의 부흥운동은 영국의 畧域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보수적인 北部에서 조차 1500년에서 1528년 사이에 Lollard적 이단활동이 3건이나 적발되었던 것이다.<sup>18)</sup> 헨리 8세 治世 末에는 이단 적발사건이 30여건 있었는데, 이들중 3건만이 Luther나 Zwingli의 개혁사상에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영국의 전통적 이단사상인 위클리프의 개혁사상을 반영한 것이었다.<sup>19)</sup> 이로 미루어 볼 때 Lollard파의 개혁신앙은 헨리 8세 말에 이르기까지 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위클리프의 추종자로서 Luther교도가 된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영국 북부에서는 전통적인 위클리프의 개혁사상과 새로 들어온 대륙적 개혁사상이 혼합되어 있었다. 북부에서도 과격한 급진주의적 개혁사상이 여러 차례 기세를 올리기도 했지만, 이러한 급진적 사상은 분명히 Lollard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어떤 급진주의자는 모든 침례(瞻禮)<sup>20)</sup>를 반대하고 막달라마리아의 도덕성에 대해 조잡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고 또 어떤 이단자는 聖水盤에 담겨져 있는 세례용 聖水를 보고, 이는 악취나는 물질에 불과하니 自身은 차라리 흐르는 강물로 세례를 받겠노라고 빈정대기도 했다.<sup>21)</sup> 그는 또한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한 女人을 범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司祭에게 고백해야만 하는가? 사제도 기회만 있다면 나와 동일한 죄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내가 만일 사도신경을 외우고, 神에게 직접 이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神은 분명히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했다.<sup>22)</sup>

殉敎史家 John Foxe는 Lollard운동을 세밀한 Elizabeth시대적 시각으로 관찰하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식인 집단을 포함하는 현상으로 파악하려고 했다. 물론 특정 지역들에 이러한 이단적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이들 지역 이외에도 이단사상은 농촌, 도시, 항구, 직물공업지대에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단사상은 신앙심이 깊지 않거나 이단자가 아닌 신자들에 의해 주장되기도 했다. Lollard의 개혁사상이 많은 영국인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영국인 전체의 공통적 사상인 反敎權主義를 항상 역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단자들은 反敎權主義로 무장하고 司祭에게 죄를 고백하는 행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18) Dickens, op. cit., p. 30.

19) Ibid., p. 31.

20) 카톨릭에서 Christ의 史跡이나 성인들을 기념하는 禮, 또는 祝日을 의미함.

21) Dickens, op. cit., p. 31 재인용.

22) Ibid.

진정한 고백은 神 자신만이 받을 수 있으며, 성인숭배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단사상이 보수적인 지역에서조차 확대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영국 종교개혁의 성격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 여하간 헨리 8세는 참회를 필요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부의 성직자를 포함하는 많은 평신도들이 교권과 教會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회구했고, 또한 사제 대신 직접 神과 교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카톨릭주의는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다. 비록 Lollard는 그들의 개혁사상의 우월함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異說은 대체로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되어 지하운동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었다. 영어성경을 읽거나, 이를 소유하기만 해도 교회당국에 고발되던 때였기 때문에, 소신있는 Lollard라 할지라도 地下로 잠적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sup>23)</sup>

후기 Lollard는 국민적 조직의 결여로 중대한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나 산재해 있던 Lollard집단들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수단과 자체의 선교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중 Thomas Man이라는 선교사는 創世記를 읽은 죄로 고발되고 1511년에는 화체설을 부정하고 사제에 대한 고백과 도유식, 그리고 성상숭배를 거부한 죄로 투옥되었다가 1518년 3월에 Smithfield에서 처형되었다. 그는 처형되기 전,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London, Chemsford, Suffolk, Norfolk 등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설(異說)을 전파했음을 볼때, Lollard운동은 지하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선교사들에 의해 교세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Lollard운동과 Lutheranism의 관계를 살펴볼 때, Hacker, Maxwell 등은 Lollard의 개혁사상으로부터 Luther교로 전향한 사람들이었다. Luther교의 첫 선교수단은 W. Tyndale이 번역한 영어성경이었다.

Wycliffe의 개혁사상과 새로운 대륙의 Lutheranism은 Tyndale의 번역성경이 영국인들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부터 혼합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독일에서 확대일로에 있던 반카톨릭적 선교사상은 영국에서도 공동보조를 취하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의 이단적 교세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나, Luther교가 영국에 상륙한 이래 영국에는 이단에 대한 재판 건수가 급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의 대부분은 영국의 전통적인 건전한 Lollard의 사상을 나타낸 반면, Luther나 Zwingli의 以信得義의 신앙은 표명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이단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대륙적 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바는 있으나 여기에는 깊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전통적인 Wycliffe의 개혁사상을 고집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530년경에 이르기까지 Lollard는 영국의 종교개혁사에 있어 두가지 일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Lollard운동은 영국 카톨릭교회의 자체적 개혁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일에 一助를

23) M. Deanesly, The Lollard Bible(Cambridge : The Univ. Press, 1966), pp. 352~73참조.



加했다. 즉 Lollard운동으로 인하여, 영국 교회의 당국자들은 그 어떤 건전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어성경을 사용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둘째로, Lollard운동은 영국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sup>24)</sup> Lollard는 Henry 8세로 하여금 로마 교회로부터 이탈케한 협력자이며 어느 의미에서는 반교권주의적 세력의 생산 주체이기도 했다. 따라서 영국 Protestantism의 성공은 중세 말에 발생한 Wycliffe의 종교개혁 사상을 논하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다. Lollard집단은 Luther교를 위한 수용지역들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었다. 성서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비교권주의적인 Lollard의 개혁사상은 영국 종교개혁의 선구였으나, 자체의 취약성으로 인해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더욱이 그들은 사회적 안정과 카톨릭적 통일성에 위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지배층의 지원은 기대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그들은 地下運動을 전개하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해방시켜줄 자의 출현을 고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에는 좀더 발전된 Protestant교도들에게 종교개혁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었다. Lollard운동은 장기간 존속하면서 영국 종교개혁에 크게 공헌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Wycliffe의 개혁사상과 Lutheranism을 동일한 사상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그들은 Lollard의 교리가 백성을 혼란에 빠트리고 기독교의 정신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Protestant지식인들은 Lollard의 개혁사상이 Protestantism을 강화시키는 作用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 II. 信仰第一主義

영국 종교개혁의 원천을 독일과 스위스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1530년대로부터 영국의 宗教史가 대륙의 종교적 대변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Luther의 개혁사상과 영국의 종교개혁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Luther는 95개조를 통해 카톨릭 당국의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고 세속 제후들의 힘을 빌려 교황의 과세권 폐지, 수도원의 해산, 순례제도의 폐지, 성직자의 독신주의와 故人의 명복을 비는 미사의 폐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카톨릭의 화체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sup>25)</sup> 그는 또한 카톨릭의 7聖事中 성찬식과 세례식만을 인정했다. 그러나 Luther가 가장 중요시한 교리는 신앙제일주의적 교리였다. 이 以信得義思想은 바울과 어거스틴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의 신앙제일주의는 단순히 그의 신학적인 제언만은 아니었다. 이 혁신적인 신교사상

24) A. G. Dickens, op. cit., p. 36.

25) Zwingli의 철저한 化體說 배척론에 비해 Luther는 성찬시에 Christ의 신비적 임재를 믿고 있었음.

은 이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내적생활과 종교적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Luther와 Paul에 의해 제기된 神과 人間 사이의 반명제는 비타협적인 것이었다. 비참한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보잘것 없는 修道와 善行만으로는 썩스러운 土의 기준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神의 公義는 두려운 것이지만 그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목적은 무난한 것이다. 神은 크리스트를 통해 인간에게 인간의 무능함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마련해 주었다. 인간이 만약 개인적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 크리스트의 공로를 신뢰하게 된다면 神은 人間을 正當化하고 人間을 神自身과 올바른 관계에 둘 것이다. 善行은 神의 구원을 받는데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선행은 그것을 속죄의 조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오도할 수도 있다. 뱃컨대 루터는 人間이 크리스트의 공로를 통해 그의 죄가 진실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그의 以信得義思想의 핵심인 것이다.<sup>26)</sup>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sup>27)</sup>

이와같이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보다는 신앙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세의 신학자들은 신앙에 의한 구원관을 부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즉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더욱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 루터는 행위와 신앙의 차이점에 특히 유의했다. 루터는 인간에게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罪된 인간이 겸손한 자세로 神의 자비를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구상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95개조를 제시했을 때에도 그는 로마교회로부터 이탈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다.<sup>28)</sup> 그는 자신이 항상 죄에 빠져있고 원죄의 지배를 받고있기 때문에 神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Luther의 唯信主義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받아들여기가 힘든 개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人間이 만든 도덕과 정의의 개념들을 분쇄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行爲 中心의 도덕은 Luther에 의해 일축되었다. 무가치한 인간일지라도 그를 正當化하는 神의 독자적인 행위는 분명히 예정설의 교리를 동반케 했다. 바울도 예정설을 말한 바 있으나 그는 이를 인간의 自由意志와 조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컸다. 예정설은 일찌기 St. Augustine도 주장한 바 있고, 그 다음 Luther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얼마 후에는 Calvin에 의해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갖추게 되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26) P. Hughes, The Reformation in England(New York : The Macmillan Co., 1951), p. 139.

27) 에베소서 2장 8~9절.

28) 홍치모, 「종교개혁사」(서울 : 성광문화사, 1977), p. 63.

16세기 초 Luther의 神의 은혜의 강조, 교황지상권의 부정, 성서제일주의, 만인사제주의, 그리고 진정한 중재자는 사제가 아닌 Christ자신이라고 외친 Luther의 혁신적인 종교사상은 카톨릭의 諸儀式을 황폐하게 했다.<sup>29)</sup> 또한 Luther의 주장은 성인숭배, 순례, 참회, 사면, 면죄부, 고인을 위한 미사 등 로마교회의 많은 제도와 관례를 뿌리째 흔들었다. Luther는 또한 성찬식의 주목적은 개인적 신앙의 강화에 있다고 보았고, 미사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善行”으로 간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Luther의 뒤를 이어 스위스의 Zwingli는 독자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Bern과 Basel에서도 이와 유사한 종교개혁이 발생했다. 당시 스위스는 중앙정부의 통제력과 교회당국의 지배력이 약해 외국인들의 종교적 실험의 이상적인 장소였다. Zwingli는 그가 목회를 위해 쾰리히에 갔던 1519년부터 카톨릭 측과 싸우다가 전사하는 1531년에 이르기까지 市議會의 협력<sup>30)</sup>으로 Luther의 종교개혁보다 좀 더 강도높은 개혁을 달성하였다. 그는 곧 人文主義의 스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렬하고 철저한 인물로 명성을 얻었다. Luther나 Calvin보다는 좀 더 관용적이었던 Zwingli는 人間 영혼의 구제는 신약성서에 나타난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데 있다고 보고, 그 어떤 교회에 의해 창안된 교리나 예배의 형식에도 구원의 요소는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앙과 지식을 겸비한 개혁자가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여러 교회로 부터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성경에 대한 新解釋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이를 통제했다. 급진주의적 개혁사상에 있어서 Zwingli는 그의 단순 명료한 Protestantism을 통해 Luther를 능가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Luther보다는 좀더 열광적으로 우상숭배의 습관과 성찬식에 대한 중세적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sup>31)</sup> 특히 그는 化體說에 대해 Luther의 견해보다는 좀 더 확실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Lollard의 성찬관과 유사한 것이었다. Luther는 카톨릭의 化體說에 대하여, 火와 鐵의 비유를 들어 共在說을 주장했었다. 즉 火와 鐵은 서로 연결될 때, 火는 鐵에 전도하지만, 火와 鐵은 그 본래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 것처럼, 빵과 포도주는 성만찬 시에 그 본래의 물질적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크리스트가 빵과 포도주에 실제적으로 임재한다고 Luther는 주장한 바 있는 것이다. 그러나 Zwingli는 빵과 포도주가 크리스트의 몸과 피로 聖變化한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반대하면서도, 크리스트의 육신은 하늘에 존재할 뿐이므로 빵과 포도주는 단순히 크리스트의 육신과 피를 상징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29) W. Hordern, A Laymans Guide to Protestant Theology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86) p. 23 참조.

30) Zwingli는 Luther처럼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고 이를 토론하기 위해 67개조의 논제를 제시함. 토론결과 Zwingli가 승리하고, 그의 주장은 市當局에 의해 公式的으로 채택됨. 김수학, 「세계교회사」 (대구 : 보문출판사, 1982), p. 319 참조.

31) W. L. Bevan, Church History (South Sewanee, Tenn. : The Univ. Press, 1914), p. 217.

Zwingli는 성찬식이 단순한 기념적 예배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sup>32)</sup> 이와같이 Zwingli는 성례란 단지 거룩함의 표시이며 주어진 은혜의 상징이라고 했고, 카톨릭의 化體說은 물론 Luther의 공재설까지 배격했으며, 크리스트의 육신은 승천 이후 천국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영국의 종교개혁에 미친 Zwingli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인 W. Tyndale, John Frith와 같은 人士들도 Zwingli의 철저한 개혁사상에 매혹당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시 영국인들은 신앙과 개혁문제에 있어서는 절충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개혁주의자들을 Luther파, Zwingli파 또는 Calvin파로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힘들다.

Luther와 Zwingli는 모두 개인의 양심의 중요성을 말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Luther는 Muntzer와 같은 극단적 이상주의자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Zwingli 역시 再洗禮敎派로 알려진 과격집단을 탄압할 수 밖에 없었다.<sup>33)</sup> 여하간 재세례교는 유럽 전역에 퍼졌고 1550년경에는 영국 종교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영국 종교개혁의 기반형성을 위해 공헌한 것은 역시 Luther교였고 그 뒤를 따라 Zwingli의 개혁사상이 여기에 부분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 Ⅲ. 기독교 人文主義思想

Luther교의 고유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국에 수용된 것은 당연하거나 자동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Luther교에 대한 수용적 자세는 영국의 전통적인 Lollard의 개혁사상뿐만 아니라 좀 더 민감하고 지성적인 여러 형세에 의해 예비되었던 것이다.

中世的 Scholasticism에 대한 Luther의 聖書至上主義의 승리는 우선 Scholasticism의 名聲을 훼손시킴으로써 가능했다. 여기에는 William of Occam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 Occam은 唯名論의 창시자로서, 요한 22세 교황의 비리를 캐내는 등 교황의 무오류성을 배격하고 모름지기 인간은 성경에 의존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sup>34)</sup> 그는 또한 이성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고, 철학과 신학이 융화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중세적 스콜라스티시즘을 배격하였다. Occam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

32) N. Nirnbaum, The Zwinglian Reformation in Zurich, Past and Present, No.15(April, 1959), p. 36.

33) V. H. H. Green, Renaissance and Reformation(London : Edward Arnold, 1985), p. 165.

34) R. H. Bainton, The Age of the Reformation(New York : D Van Nostrand Co., 1956), p. 22.

이며 정신적인 것은 實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스콜라스티시즘의 위세를 꺾었다. 따라서 스콜라스티시즘의 세계는 Lutheranism이 도전해 왔을 때에는 이미 버틸 힘이 없었던 것이다.

사실 Luther는 처음부터 Occam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후에는 Occam주의자들과 결별했다. 그러나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은 선배 Occam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sup>35)</sup> 1530년대 영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단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Luther교 또는 좀 더 급진적인 종교사상을 선호했던 것은 특기할만 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원천적으로 Petrarca시대 이전,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선호하여 스콜라 철학과 신학을 배격했던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었다.<sup>36)</sup> Reuchlin과 Erasmus, 그리고 Colet시대에 유행한 이러한 학문적 풍조는 주로 성경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영국의 신학적 견해와 연구방법이 변한 시기는 Colet가 Oxford대학에서 바울의 로마서 강의를 한 1496~7년 사이였다. Colet는 로마서 연구에 있어서 Luther의 업적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중세 학자들에 비해 그의 비판력은 신선한 충격과 폭넓은 견해를 보이고, 또한 일정 수준의 근대적 감각을 나타내었다. Colet의 종교관은 Luther의 것과 흡사했다. Colet는 또한 바울이 주장한 바와 같이 儀式과 祝祭는 인간을 정당화하거나 인간의 영혼을 정화할 수는 없다고 믿었다. 이와같이 Colet의 신학은 주로 Paul의 신학에다 성 어거스틴의 신학을 적절히 융합시킨 것이었다.<sup>37)</sup> 그는 바울이 재해 구조를 위해 行했던 순수한 모음을, 로마교회가 십일조라는 미명하에 백성을 착취하는 금전과 비교하면서 교회당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로마서 解說은 결코 Luther의 업적을 능가할 수 없었다. 즉 그는 바울이 강조한 바 있는 determinism에 注意를 별로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Christ의 대속적 권능을 강조하고 七聖事의 기능을 과소평가 하였다.<sup>38)</sup> 그는 Luther와는 달리 人間의 자유로운 기능을 강조하여, 인간의 의지는 신의 섭리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며 인간이 스스로 범하는 죄야말로 신의 저주를 받게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교회와 사회의 부패보다는 人間의 공통적 성격인 타락성을 더욱 문제시했다.

Colet는 Luther처럼 위대한 종교개혁 사상을 나타내지는 못했으나, 나름대로 독자적이고 솔직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humanist로서의 비판적 안목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아직 保守性을 완전히 떠나지 못해, 카톨릭의 化體說을 신봉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신비적인 合一思想에도 흥미를 나타냈고 크리스티교적 공산주의에도 同情的이었다. 그는 7성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는

35) Occam은 지식을 직관적 지식과 추상적 지식으로 구분함. 그는 직관적 지식만이 옳다고 주장. G. Leff, *The 14th Century and the Present*, Vol. 2, No. 9, April, 1956, p. 33 참조.

36) A. G. Dickens, *op. cit.*, p. 64.

37) g. K. McConica, *English Humanists and Reformation Politics under Henry 8 and Edward 6* (Oxford Univ. Press, 1965), p. 47.

38) *Ibid.*, p. 47.

않았으나 교황의 권위는 인정했다. 그러나 교황의 비리에 대해서는 함구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아 Colet는 교황주의자이면서도 로마교회에 대해서는 批判的이었다. 그는 Lollard의 존경을 받고 London주교로부터는 이단으로 고발되기까지 했다. 즉 Colet는 영국의 改新敎史에 있어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톨릭 신자였다. 그의 특수한 점은 그가 Luther나 Tyndale에 앞서,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고찰된 성경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열렬한 관심을 표명한데 있는 것이다.

Erasmus도 영국의 종교사상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카톨릭의 迷信的 관행에 대한 그의 비판은 영국 종교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로부터 나온 시대적 풍조는 Thomas More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까지 했다. Erasmus의 人文主義的 活動으로 영국인들은 humanism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反開化主義者라는 멸시적인 지탄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확신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많은 영국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知的 運動에 동참했다. 이러한 知的 충동은 新學問에 대한 자연발생적 호기심과 가치에서 뿐만 아니라, 마침내 계몽적 황금시대가 도래하였다는 확신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다.<sup>39)</sup> 이러한 신시대적인 humanism의 확산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이를 대신해서 Lutheranism이 등장했다. Erasmus가 영국종교에 미친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영국 종교개혁사 초기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영국 최초의 루터교회는 1520년경 Erasmus가 학문적으로 활약한바 있는 Cambridge대학에서 형성되었다. Erasmus가 활동한 Cambridge대학의 동료들 중에서는 저명한 Protestant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가 번역한 Latin어 신약성서는 Cambridge대학의 Luther파와 Oxford대학의 그 支派 形成에 큰 영향을 주었다.<sup>40)</sup>

Erasmus의 인문주의사상은 유럽의 지성계를 수십년간 지배했다. 기독교 인문주의가 영국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영국 종교개혁의 原因的 主體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더구나 Erasmus가 사망한 뒤, 기독교 인문주의는 단일한 사상체계가 아닌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상들을 나타냈다. 특히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 정치가들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Erasmus가 수도승들을 경멸하고 교회의 축제에 대해 비난했기 때문에, 여기에 Henry 8세가 용기를 얻어 수도원을 해산시킨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39) A. G. Dickens, op. cit., p. 66.

40) 예를 들어 1519년 司祭의 서품을 받은 T. Bilney가 Erasmus의 영향을 받아 新敎로 개종하여 카톨릭의 비리를 공격하고 Cambridge 대학에 루터교를 연구하는 Protestant 집회를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 IV. Luther主義者들의 活動

영국 종교개혁의 진정한 진원지는 小 Cambridge교회당이였다. 여기에서는 1510년경부터 Barnes, Bilney, Latimer 등이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설교를 해왔다. 이 교회당 근처에는 〈White Horse〉라는 이름의 Protestant 集會所가 있었다.<sup>41)</sup> 이곳에 모이던 회원들의 Protestant 운동은 1520년초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다. 당시에는 교회 당국이 禁書로 지목한 Luther의 저서들이 Wolsey추기경의 감독하에 분서될 정도로 이단활동이 활발했다.

Protestant운동의 지도자자인 Tyndale, Roy, Barnes, Coverdale, Bilney, Latimer, Cranmer, Frith, Lambert, Ridley, Taylor, Arthur, Parker 등은 주로 설교와 저술에 종사하면서도 高位公職에도 다수 취임했고, 일부는 이단적 신앙의 고집으로 처형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White Horse〉에서 처음 만나 주로 Lutheranism에 대해 토론을 벌였는데 이 集會의 長은 보통 Robert Barnes<sup>42)</sup>가 담당했다.

London의 상인들도 Luther의 개혁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London에 체재하던 外國商人들도 루터주의 전파에 한 몫을 했다. 즉 그들은 유럽 대륙과 영국을 왕래하면서 Luther의 서적들을 영국에 배포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London상인과 Antwerp주재 영국상인들도 영국의 종교적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Protestantism은 그것의 국제적 관련성과 反카톨릭주의, 그리고 유럽 전역을 누비는 Protestant상인들의 활동으로 용이하게 확대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이단사상을 가진 전탁발송들, 大學을 중심으로한 지식인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상하여 확고한 지위를 구축한 도시상인층이 영국의 Protestantism을 전파하는데 주역을 담당했다. 이에 비해 농촌의 지주들과 Protestant신앙의 확대와의 관련성이 종종 과대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sup>43)</sup>

초기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대표는 역시 William Tyndale(1494~1535)이었다. 그가 Cambridge에 있을때 〈White Horse〉에 참가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는 평생 그의 소신대로 살면서 新敎의 실현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특히 영국인들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부라도 이를 읽고 스스로 진리를 깨우칠 정

41) 〈White Horse〉는 영국 최초의 Protestant학자들이 루터의 교리학설을 토의하기 위해 모이던 장소임.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경멸조로 "Little Germany"라고 칭하기도 했음.  
 42) Cambridge 어거스틴 수도원 부원장. Luther敎에 심취했고 그의 후원자인 Thomas Cromwell의 死後에 는 이단의 죄목하에 처형됨.  
 43) A. G. Dickens, op. cit., p. 70.

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sup>44</sup> 그는 성경 번역을 위해 Tunstall London주교를 방문하여 그의 계획을 말하고 후원을 요청했으나 한마디로 거절당했다. 즉 Tunstall은 성서 번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Protestantism에 심취되어 교회 당국의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점차 이단으로 물리개된 Tyndale은 London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독일로 건너가서 Luther를 방문하고 Wittenberg대학에 체재했다. 이곳에 약 1년간 머무르면서 그는 성서를 번역하고 이를 Cologne에서 인쇄코자 했으나 反宗教改革派의 압력으로 다시 Worms로 자리를 옮겨 결국 이곳에서 그의 성서를 출간할 수 있었다. 이 번역 성서가 영국에 유포되자 Warham 캔터버리 대주교와 Tunstall London주교는 이를 압수하여 소각하도록 명령했다. 당국에서는 Tyndale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그는 Marburg로 도주하여 Hesse伯의 보호를 받았다. 이 곳에서 그는 化體說을 순의적으로 否定하는 Zwingli의 견해를 채택하고 神學에 관한 몇가지 책을 出版했다.<sup>45</sup> 이 동안에 그는 Thomas More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여하간 Tyndale은 네덜란드에서 활약하다가 독일황제의 관헌에게 체포되어 1536년에 교수형을 받게 될 때까지 오로지 宗教改革事業에 몰두해 있었다.

Tyndale의 Protestant선전을 위한 지속적인 출판사업은 London의 巨商 Monmouth 등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유럽의 상업도시인 Antwerp는 영국 종교개혁의 요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Tyndal의 번역성서는 영국교회 당국의 유포 금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으로 부터 계속 밀수되어 확산되었다. 이 번역성서는 물론이고 Tyndale의 다른 저서들에서도 그는 英文 구사의 大家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Protestant的 改革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로 Erasmus의 그리스 성경을 토대로 번역했는데, 이를테면 그는 “聖堂” 대신 “會堂”이라고 번역한다든가 “主教” 대신 “長老”라고 표현함으로써 카톨릭과 그 성직자들의 권위를 격하시키려고 했다. 그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敎理는 성경에 근거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카톨릭이 사용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가능한한 신학적으로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新敎主義的 성경을 그가 평신도들에게 배포하려고 했던 것은 당시의 종교적 상황으로 보아 혁명적인 일이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은 Protestant의 입장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성경을 私的으로 연구하는 일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 신앙의 강화를 목표로 한 Tyndale의 번역성서는 영국인들의 종교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Tyndale은 1530년까지는 Luther의 신학을 따랐으나, 그가 모세 5경 번역에 착수한 뒤부터는

44) “Tyndale”, Encyclopedia Americana, 1975, ed.

45) 「邪惡한 拜金의 비유」, 「기독교인의 服從과 기독교支配者의 統治要領」, 「高位聖職者들의 實際」 등.



Luther의 복음주의보다 律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죄인은 神 앞에서 신앙에 의해 정당화되지만 사람들 앞에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Tyndale의 주장은 후의 Puritan神學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Tyndale의 정치사상은 영국교회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탈한 것과는 관계가 깊다. Luther가 그의 신교사상을 확대키 위하여 제후들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Tyndale도 그의 Protestant사상을 영국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헨리 8세의 협조가 필요했을 것이다. Tyndale은 그의 저서 「기독교인의 服從과 기독교지배자의 통치요령」을 통해서 王權神授說을 논했다. 그는 주장하기를 국왕은 교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그의 臣代들은 종교적 의무로서 국왕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Tyndale은 영국의 국왕들이 카톨릭의 고위성직자들에 의해 포로처럼 구속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왕권신수설의 정치철학을 수립했던 것이다.<sup>46)</sup> 그는 모름지기 신민은 국왕이 여하한 오류를 범했다고 해도 그에게 저항하거나 복수를 감행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국왕이 教會보다 下位에 있다고 하는 주장보다 국왕의 위신을 더 실추시키는 주장은 없다고 했으며, 사실상 성직자들도 일반신도들처럼 국왕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국왕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단언했다.<sup>47)</sup> 또한 국왕은 두려운 존재로서 유능한 평신도들의 협조를 받아 통치해야 하며 성직자들의 독재를 타도하고 그들의 富를 共同의 善을 위하여 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독립적인 司法權을 박탈해야 하며 이단에 대해서도 世俗 刑事들이 이를 심리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sup>48)</sup>

Tyndale은 그의 사상을 실천에 옮기기 보다는 설교에 중점을 두었다. 헨리 8세의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그는 태도를 바꾸어 이를 비난하고, 국왕이 루터교를 영국의 국교로 삼지않는 한 국왕지상주의를 옹호하는 어용문필가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君主의 神格化는 얼마동안은 보편적인 추세였다. 즉 보수주의자와 루터주의자 모두 국왕지상주의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정부적 혼란 상태를 경험한 바 있는 많은 백성들이 군주의 절대적 권력을 오히려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sup>49)</sup>

Tyndale의 제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은 Thomas Cromwell의 위촉으로 각급 교회의 비치용으로 “大聖書”(The Great Bible)를 번역 출간(1539)한 M. Coverdale이었다. 또한 Garret라는 성직자는 교회당국의 단속을 피해 몰래 신약성경을 판매하고, 설교를 통해 모든 司祭는 로마교황과 동등하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sup>50)</sup>

46) P. Hughes, op. cit., p. 137.

47) Ibid.

48) Ibid.

49) 당시인들은 “君主의 분노는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수긍하고 있었음.

50) P. Hughes, op. cit., p. 290.

Frith라는 Protestant는 카톨릭의 연옥설에 대해 공격하고 미신적 관행을 배격했으며, 특히 化體說에 대해 비난했기 때문에 Thomas More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결국 이단자로 정죄되어 처형되었으나, 그는 종교적 자유주의의 기수로서 순교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이단자로 정죄되기 전, 화체설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묻는 재판관에게 그는 이렇게 답변했다. “내가 왜 죽음을 감수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겠소? 그것은 카톨릭 성직자들이 신봉하는 化體說을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이요, 빵과 포도주가 크리스트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성경구절이 어디에 있소? …… 화체설은 성경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요, 나는 또한 인간의 구원문제가 포함돼 있는 카톨릭의 신조를 믿지 않고 있소, 카톨릭은 그러한 힘도, 권위도 없소 …… 良心있는 사람은 나의 죽음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요, 화체설이 설혹 옳다고 하더라도 이를 信條化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소신이요, ……”<sup>51)</sup>

신앙과 교회에 대해 헌신적이었던 T. Bilney는 카톨릭의 형식적인 예배와 성인숭배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카톨릭의 모순을 지적하고, Barnes, Lambert, Latimer 등을 Bilney 자신보다 훨씬 더 과격한 프로테스탄트 선전가들로 만들어 놓았다. Bilney는 Luther와는 달리 카톨릭의 기본적 교리들에 대해서는 항상 수긍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527년에는 이단의 혐의로 체포되어 참회를 강요받고 1년 이상 London탑에 수감되기도 했다. 출감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감출 수 없어 다시금 바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설교했다. 그의 설교는 비교적 온건한 것이었으나 다시 이단자로 체포되어 1531년 Norwich에서 火刑에 처해졌다.

1530년대에는 영국의 종교적 국면은 좀더 복잡해지고 신·구의 교파가 모두 분열의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영국의 종교개혁이 발생한 1530년대야말로 교리적으로 보아 不確實性의 시대였다. 영국의 정치적이고 司法的인 宗教改革은 神學的인 주장보다 앞서 수행되었던 것이다. 헨리 8세는 종교개혁의 방향을 急進主義쪽으로 몰고갈 수도 있었다. 헨리 8세는 만약 Luther가 카톨릭의 제도와 교리를 배격하지 않고 성직자들의 비리를 공격하는 정도로 끝냈다면, 영국의 모든 백성들은 Luther교를 신봉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여하간 1529년 말 反教權主義的 議會가 소집되어 국왕에게 충성을 표하면서, 성직자들의 특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國王의 의도에 同調하자 국왕은 과감한 종교개혁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었다.

51) Ibid., pp. 43~5 재인용.

## V. 國家至上主義와 反教權主義

1530년대를 통하여 헨리 8세는 영국교회를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를 國王의 통제권하에 종속시키는 이중적 혁명을 수행했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투쟁은 오직 국왕의 이혼문제에서 야기된 것은 아니었다. 영국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투쟁은 드물게 나타났던 현상은 아니기 때문이다.<sup>52)</sup> 14세기만 하더라도 영국의 주교임명은 교황의 관할사항처럼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왕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했고, 비록 성당참사회원들 중에는 外國人도 섞여 있었으나 그렇다고 영국교회가 로마교황청에 굴종하는 처지는 아니었던 것이다.<sup>53)</sup> 그런고로 宗教改革議會(1529~36)의 혁명적인 입법조치들은 과거에도 국가가 교회에 가했던 規制的 立法措置들을 고려에 넣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좀 더 기본적으로 점진적으로 심화돼 가고 있던 영국인 일반의 반교권주의와 Erasmus思想<sup>54)</sup>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사상들은 역사적으로도 학적인 튼튼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有力王家들은 카톨릭에 대한 국가의 우월권을 소유하기 위해 君主들의 권력을 옹호하는 政治理論들을 이용코자 했다. 이러한 정치적 이론과 행동은 Dante와 Phillippe 4세에게서 찾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국왕지상주의적 견해는 이탈리아의 Marsiglio of Padua, Wycliffe 등이 표명했다. 이들이 주장한 국가우위론은 성서·신학·철학·역사의 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이었다. 의사이며 신학자였던 Marsiglio는 익명으로 출간했던 「Defensor Pacis」가 그의 저술임이 밝혀지자 교황 요한2세로부터 파문까지 당했다. 이 「平和擁護者論」은 중세카톨릭에 대한 가장 무례한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특히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적 국가지상주의와 19세기의 民主主義理論 그리고 20세기의 國家崇拜思想의 원천이었던 것이다.<sup>55)</sup> 요컨대 Morsiglio는 國家야말로 지상의 文明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정치적 권력과 사법권으로부터 教會를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國家는 또한 全能的이고 自己充

52) 12세기 Thomas Becket 대주교가 왕권에 대한 교회의 독립을 주장하다가 헨리2세에 의해 살해됐던 사건은 그 한 예임.

53) G. Lefl, "Heresy and the Decline of the Medieval Church", Past and Present, No.20(Nov., 1961), p.37.

54) Erastus(1524~1583)는 스위스의 개혁파 신학자로, 교회는 국가에 종속해야 한다고 주장함. Zwingli의 추종자이기도 했던 Erastus는 Luther의 성찬관을 반대하고, 파문 등의 권한은 오직 교회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엄격한 Calvin주의자들의 주장도 배격했음. 그는 특히 구약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크리스트교 국가의 군주들은 적절하게 교회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헨리 8세의 국가우위사상은 일종의 Erastianism이라고 볼 수 있음.

55) A. G. Dickens, op. cit., p.84.

足的이지만 百姓들에게 生活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줘야 할 책임이 있고, 백성들이 양도한 權限을 가지고 國家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反해 敎會는 종교의 업무에만 종사해야 하며 꼭 必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세속적 권리도, 재산도, 사법권도 소유할 수 없다고 그는 역설했다. 결국 Marsiglio의 目的은 교황의 권위와 성직자들의 세속적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信者들의 행위의 기준이 되는 종교사상의 체제까지 파괴하는데 있었다.<sup>56)</sup>

Marsiglio는 성직자의 기능과 의사의 기능을 이렇게 비교설명했다. 성직자들은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죄인들을 교도해야 하며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고 신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어야 한다. 異端者에 대한 처벌 여부는 世俗의 법정이 이를 심리하여 決定해야 한다. 성직자들도 평신도와 마찬가지로 국법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에서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심일조를 징수할 수도, 면세의 특혜도 받을 수 없다. 교황을 포함한 모든 성직자들은 그들의 직책을 군주로부터 부여받고 군주의 명에 의해 종교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잘못을 범하는 경우에는 세속당국에 의해 면직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교회는 全信徒로 구성되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Marsiglio는 최소한 모든 신자들이 성직자라고 하는 루터의 “萬人司祭主義”에 접근했다. 교황과 주교는 人間이 發明한 직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소유한 특수권한은 認定될 수 없다. 교황이나 주교도 단순한 司祭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될 수 없다. 베드로 自身은 다른 신자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지도 못했고, 주교라는 명칭도 소유해보지 못했으며 더구나 로마에 체재했었다는 정확한 역사적 근거도 없다. 또한 로마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반드시 우월하다는 주장에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敎皇의 명령과 敎會法도 만약 국가가 이를 인정치 않는다면 하등의 구속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적 교리와 행위의 규범은 오직 신약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William of Occam과 Wycliffe의 국가관도 Marsiglio의 그것과 흡사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Marsiglio나 Wycliffe의 저서를 읽고 곧 국가우위사상을 신봉하게 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상은 교회의 비리를 목도한 결과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했고 또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가 정치적 상황이 이를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밖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 14세기 중반 종교는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야 하고 君主는 교회의 수장이 되어야 한다<sup>57)</sup>는 내용의 Erastianism은 헨리 8세의 종교개혁 시대에 그 절정을 누렸다.

中世의 국가들은 대체로 Catholic과 타협적인 관계를 오래 유지했다. 교황과 종교회의는 보편 교회를 지배했지만 점차로 세속적인 업무에까지 간섭하게 되었다. 영국의 종교재판소도 이단, 불경, 성직자 모독행위, 예배불참, 성직자 직무태만 등은 물론, 위증, 중상, 마술, 음란, 이혼,

56) P. Hughes, op. cit., pp. 331~2.

57) Ibid., p. 226.

유언검증에 대한 訟事를 심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國王法廷은 고유권한 이외에도 몇 가지의 종교적 사법권을 소유하고 있었다.<sup>58)</sup> 원래 영국인들은 國王의 지상적 권위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Thomas Becket 대주교 피살사건 이래 국왕과 교회 사이에는 종교적 사법권을 놓고 비교적 안정된 타협이 성립되었고 국왕과 교황 사이에도 온건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졌다. 14세기 초 Edward 2세 이후부터는 영국의 주교를 선임할 때에 먼저 상당참사회원들이 국왕과 논의하고, 다음에 국왕이 교황과 상의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성직자와 교회재산에 대한 교황과 국왕의 권한은 양자의 정치적 세력의 부침에 따라 급격하게 동요했다. John E.(1199~1216位)의 치세 말과 Henry 3세(1216~1272)의 치하에서도 교황의 對英統制權은 상당히 강했으나 Edward 3세(1327~1377)와 Richard 2세(1377~1399) 때에는 교황청의 분열로 오히려 국왕의 세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주교들은 교황 대신 국왕을 상전으로 받드는 경향마저 보였던 것이다. 3회에 걸쳐 제정된 바 있는 「教皇尊信罪에 관한 法令」(Praemunire Statute)<sup>59)</sup>은 국왕의 권력 확대를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1510년 1월 Warham 대주교가 성직자회의를 소집한 것은 당시 영국사회에 퍼져 있던 성직자들에 대한 反感과 교회의 특권에 대해 토의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개회 설교를 맡았던 John Colet는 평신도들이 가지는 성직자들에 대한 반감은 성직자 자신들의 사악한 생활로 인해 발생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고, 성직자들은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하여서도, 그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속적인 물욕의 굴레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sup>60)</sup> 그 다음에 Colet는 성직자들의 태만, 탐욕, 속물적 경향에 대해 비난하고 수도승의 엄정선발, 유능성직자의 처우개선, 제종단의 개혁, 회의의 수시개최, 성직매매금지, 부채성직의 금지, 교회예산의 절감, 교회재산소의 부조리척결 등을 요구했다.

Henry 8세 치세 초, 심각한 논의는 여전 성직자들의 특권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때 마침 Richard Hunne사건이 발생했다. Hunne은 London상인으로 그의 乳兒가 사망했을 때 그의 교구 사제에게 시체안치료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제는 이를 받아내기 위해 그를 교회재판소에 제소했다. 여기에 Hunne은 세속법정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同時に 자신을 고소한 사제를 교황 존신죄에 해당하는 범법자로서 처벌해 줄 것을 세속법정에 호소했다.<sup>61)</sup> 그러나 세속법정은 Hunne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Hunne은 주교의 명에 의해 이단자로 체포되었는데, 이는 순전히 카톨릭측의 보복행위였던 것이다.<sup>62)</sup> 그가 이단자였는지의 여부는 논란의 대상

58) 예를 들어 성직임명권, 교회재산에 관한 사법권 등이 그것임.

59) 영국의 臣民으로서 교황을 국왕보다 더 尊信하여 국의에 反하는 言動을 한 者에게 重刑을 가하도록 규정한 법령임.

60) A. G. Dickens, op. cit., p. 90.

61) Hunne은 同司祭가 신도의 재산을 다루는데 있어 國法이 아닌 로마교회법을 준용하는 죄를 범했으나, 사제를 교황존신죄를 범한 자로 다스려 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했던 것임.

이 될 수도 있으나 그가 Wycliffe의 서문이 담긴 영어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사실이다.<sup>62)</sup>

여하간 세속법정의 전통적인 反聖職者的 태도로 미루어 보아 Hunne이 교황존신죄에 관한 법령을 自己保護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성직자들에게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단계에서 London주교는 침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Hunne의 체포와 가택수색을 명했던 것이다. 얼마 후 Hunne은 監房內에서 교살된 시체로 발견되었고, 주교의 법률고문 등 3인의 성직자들이 살인혐의로 고발되었다. 그러나 교회당국은 그들이 기소되는 것을 방해했고, London시민들은 3인의 성직자들이 Hunne에 대해 복수의 살인을 감행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London시민과 주교 사이의 깊은 적개심을 나타낸 사건이었다.<sup>63)</sup> 그러나 이 사건 하나만으로 London시민들은 적극적인 반교권주의 운동을 전개하지는 않았다.<sup>64)</sup>

그러나 Hunne사건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했다. 1515년 2월에 의회가 소집되자, 의원들은 성직자의 특권에 대해 맹렬하게 공격하고 1512년의 임시법령<sup>65)</sup>을 更新하려고 했다. 그러나 Winchcombe 수도원장 R. Kidderminster는 St. Paul's Cross에서 설교를 통해 성직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카톨릭의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하원 의원들 중 일부와 제후들은 국왕에게 反聖職者的 감정을 토로했기 때문에 國王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기로 했다. 이 때 R. Kidderminster가 성직자의 代表로 나섰고 Dr. H. Standish가 俗權의 代表자로 나섰다. Standish는 소규모 宗團들에게까지 治外法權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교황의 敎諭은 영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Kidderminster는 성직자들의 특권을 내세워 이를 반박했다. 당시만 해도 성직자들은 오직 성직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었고, 교회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는다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다.<sup>66)</sup>

하원의원들은 Kidderminster에게 그의 성직자옹호론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카톨릭 주교들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Kidderminster의 발언을 지지하겠다는 선언했다.<sup>67)</sup>

Standish는 일련의 대중연설을 통해 성직자들을 계속 비난했다. 이 때문에 Standish는 성직자 회의에 출두해서 여러가지 까다로운 질문에 답변해야 했고 결국 빠져나갈 길이 막히게 되어 스스로 그의 주장을 취소하던가 이단자임을 천명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Standish는 모든 답변을 피하고 직접 國王을 알현하고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호소했다.

62) P. Hughes, op. cit., pp. 150.

63) C. Cross, Church and People, 1450~1660(Glasgow : William Collins sons & Co. Ltd., 1976) p. 39.

64) C. S. L. Davies, Peace, Print & Protestantism, 1450~1558(London : Granada, 1982), p. 153.

65) 聖·俗間 反目的의 좀 더 큰 원인은 십일조 문제에 있었음.

66) 이 임시법령은 성직자들의 이익과 특권을 박탈키 위한 것이었으나 당시 上院은 다수의 성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同法令의 更新案은 부결될 수 밖에 없었음.

67) P. Hughes, op. cit., p. 151 참조. 小宗團에 속한 성직자들은 이러한 특권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68) Ibid., p. 152.

국왕은 우선 법조인들을 소집해서 위의 문제를 처리할 것을 명했다. 법조인들은 속의 끝에 Standish가 국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말하고, Standish를 성직자회의에 출두하도록 명령했던 성직자들은 교황존신죄를 범한 자들과 다름이 없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기세가 꺾인 성직자들은 國王의 자비에 매달리는 수 밖에 없었다.

그 뒤 Standish에 대한 異端論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고 오히려 Standish는 Wolsey추기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왕에 의해 주교에 임명되기까지 했다.<sup>69)</sup>

이와같이 사건을 全의으로 Henry 8세의 종교개혁의 연습으로 돌리는 것은 無理이겠으나 그것은 분명히 宗教改革議會(1529~1536)의 제일국면을 예시해 주는 것이었다.<sup>70)</sup> 즉 당시의 개혁은 교회를 겨냥한 것임은 사실이나 그것이 로마교회와의 분리를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계속 충돌하고, 하원의원들과 시민 대표들 그리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성직자의 특권에 대해 계속 공격했다. 이 법조인들로부터 국가지상주의를 찬양하는 작가들이 배출되고 1520년 말에는 강력한 Protestant조직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왕 자신은 선천적인 혁명가는 아니었다.<sup>71)</sup> 그러나 하원의원들은 성직자들이 가렴주구의 영주들로서 빈곤한 농민들의 고혈을 빼는 족속들이고, 수도원장들은 피혁과 羊毛를 거래하는 상인들이며 地主聖職者들은 대부분 대저택에 살면서 교구민들을 착취할 뿐,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sup>72)</sup> 여기에 대해 성직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國王은 양측을 화해시켜 일시 세력균형을 이루었지만, 영국의 전통적인 反교권주의사상이 남아있는 한, 그 언제라도, 대규모의 종교개혁은 불가피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保守·改革派의 적대적 모습은 문필분야에서도 나타났다. C. German은 교회의 司法權에 대해 反感을 나타내고, 교회법은 결코 神의 법률과 同一視될 수 없고, 俗事에 대한 사법권은 반드시 국가권력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3)</sup> 그러나 그는 國王도 국민의 同意를 얻어야 立法할 수 있고 오직 의회에서만 시체안치료,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종단에 양도하는 死手讓渡(mortmain)의 금지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議會가 국민 모두에게 모든 財貨를 再分配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소유해야 하고, 교회재판소는 이단에 대해 재판할 수 없고 다만 단순한 정신적 사건에 한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교권주의를 훨씬 더 사실적이고 웅변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Simon Fish였다. 그는 일찌기 Wolsey추기경과 不和하여 유럽 대륙으로 망명한 바 있고, 망명생활 중에 「걸인들의 歎願」(A Supplication of the Beggars)이라는 책자를 저술하여 이를 1529년에 발간했다. 그는 이 책들을

69) Ibid., p. 154.

70) A. G. Dickens, op. cit., p. 94.

71) Ibid., p. 95.

72) Ibid.

73) Ibid., p. 97.

Tyndale의 신약성서와 함께 London에 유포시켰는데 그 중 한권은 Anne Boleyn을 통해 헨리 8세에게 전달되기까지 했다. 이 「결인들의 탄원」은 빈민과 병자들이 국왕에게 호소하는 탄원서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주요부분만을 발췌 인용코자 한다.<sup>74)</sup>

“영국의 모든 주교, 수도원장, 부주교, 부원장, 사제, 부제, 수도자, 성당참사회원, 탁발승, 면죄부 판매인들은 진정한 牧者들이 아니라 牧者의 옷을 입고 양떼를 삼키는 굶주린 늑대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유언집중료, 십일조, 代禱料 등을 받아들임으로써 거액의 금전을 축적했습니다. 신자들은 이들에게 매장료, 장례집전미사비, 故人을 위해 부른 애도가 가창료 등을 지불해야 하고,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유족의 친지와 유언집행인이 고발당합니다…… 그들은 또한 남의 아내와 下女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사생아를 낳게 하기 때문에 재산 상속 때에도 친자식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형편입니다…… 양식있는 사람들은 만약 煉獄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교황이 돈을 받고 사람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다면, 교황은 또한 돈을 받지 않고도 인간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연옥은 과별되어야 합니다…… 이 건장한 사나이들(성직자들)을 그들의 妻와 함께 해외로 추방하여, 이마에 땀방울을 흘림으로써<sup>75)</sup> 생계를 잇게 하십시오. 성직자들이 몸소 노동의 수범을 보여야 나태한 백성들이 일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도적들이 스스로 노동하여 살게 될 때까지 이들을 수레에 태우고 옷을 벗겨 市場바닥을 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방탕한 자, 낭비벽이 있는 자, 나태한 자가 줄어들고 성직자의 착취도 사라져서 국왕폐하의 권위가 회복되고 건전한 남녀관계가 정착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백성들의 재산이 불어나며 복음이 전파되고 걸인도 사라지며 高貴한 王國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Fish는 성직자들의 비리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비난했으나 그들의 탐욕과 不道德性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Fish의 주장에 공감했다. 그러나 Fish의 이러한 비판이 곧 종교개혁으로 연결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Tudor 왕정시대에 영국인들의 가치관은 과거의 그것과는 크게 구별되었고, 종교개혁사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좀 더 뚜렷하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 필자는 영국 종교개혁의 近因에 대해 고찰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국 종교개혁의 요인을 단순히 국왕의 이혼문제나 王權強化의 目的, 또는 왕실재정의 확충을 위한 물질적 경제적 목적에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을 그것의 近因에서 찾아보려고 시도하였다. 즉 영국의 종교개혁에는 영국의 전통적인 Wycliffe 및 Lollard의 개혁사상, Christian Humanist들의 비판적인 사상, Luther주의자들의 Protestant운동, 그리고 國家至上主義와 Anticlericalism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諸近因들이 16세기에 適時를 만나 실제적인 종교개혁의 수행으로 전개되었다고 생각한다.

74) 본 인용문은 Documents of Modern History(ed. by Dickensd Carr), (London : Edward Arnold, 1967), pp. 16~19에서 발췌 재인용한 것임.

75) 창세기 3장17절 참조.